

# 한국 기본포와 일본 고소데(小袖)에 관한 연구

김 미 자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Korean Po(袍) and Japanese Kosode(小袖)

Mi-Ja Kim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 ABSTRACT

The Kosode(小袖), which is a traditional Japanese outfit with a narrower sleeve than the Kimono, was worn under the court dress.

Korean who first immigrated to Japan wore the Po(袍; the Korean clothes of the time) and introduced the outfit to the Japanese people, who adopted and integrated it into their daily wear. This outfit was labelled the Kosode(小袖) during the 13th century. The Kosode(小袖) eventually developed throughout centuries into today's Kimono.

기본포(基本袍). Kibonpo(Traditional Korean Basic Outfit)

袂형기본포. Mekibonpo(Traditional Korean Outfit with Round Sleeves)

통수포(筒袖袍). Tongsupo(Outfit with Narrow Sleeves)

고소데(小袖). Kosode(Traditional Japanese Outfit with Narrow Sleeves)

후리소데(振袖). Furisode(Traditional Japanese Outfit with Fluttering Sleeves)

## I. 서 언

한국의 기본포(도 1)의 원류는 스키타이 계<sup>1)</sup>(도 2-1, 2)이며 4C~6C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된다.

韓國 민족인 東夷族은 中國 동북방에 B.C. 2000년대 이전에 이미 거주하여 黑陶文化를 주도했으며 중국의 殷王朝는 동이족의 한 분파였다.<sup>2)</sup>

고대 한국의 服飾문화는 주변국가보다 매우 발달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예 중의 하나가

한국의 襦袴를 B.C. 4C경에 趙 武靈王이 戎服(袴褶)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보며,<sup>3)</sup> 일본에서는 한국인이 집단으로 이주할 때 입고 간 우리옷(襦·袴·袍·裳)을 계속 입었으며 원주민에게도 전했다고 본다. 그 증거는 襦·裳, 襦·袴를 착용한 하나와(檀輪)와 기본 袍를 착용한 備(도9)으로 알 수 있다.

일본인들은 小袖의 기원을 平安시대 중엽으로 본다. 이 당시 서민의 일상복 및 궁정 남녀의 下着(속옷)으로 입혀지던 小袖가 室町시대에 이 2가지가 융합되어 각 계층에서 공통으로 착용한 의복형식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小袖의 원류는 한국인이 일본으로 입고간 한국의 기본포(도 1)와 袂형 기본포가 平安시대에 小袖라는 명칭으로 불린 것이며, 袂형 기본포는 기모노로 발전되었고, 기본포는 유카다(浴衣)와 노동복으로 현재까지 입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증명하여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袍에 관한 가시적 자료는 많지 않으나 한국과 일본과의 교류 관계로 보아 복식문제를 풀 수 있다. 즉, 일찍부터 일본열도에 우리민족 집단이 대거 진출하여 일본을 지배하였고, 천황가는 한국에서 건너갔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언어는 한국 고대 조리어였으며 의식주 생활이 거의 같았다고 한다.

복식의 유사성은 한국 기본 복식인 유고와 유상을 착용한 하나와(檀輪)로 증명되며, 袍도 착용했으나 차츰 다습한 기후로 인해 일부층을 제외하고, 袍를 입지 않게 되었다고 본다.

연구 방법은 한·일의 문헌자료와 유물자료를 분류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 내는 비교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고 형태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대 범위는 한국의 경우는 삼국시대로 국한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고분시대부터 小袖가 기모노로 정착된 江戸시대까지로 설정하였다. 연구 자료 범위는 한국의 고구려 고분벽화,

梁職貢圖의 三國 사신도이며 일본의 자료는 備, 天壽國曼荼羅繡帳, 高松塚벽화, 正倉院 유물, 平安~江戸시대의 회화, 풍속화, 유물 등이다.

## II.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일본에서는 고대에 持續적으로 이주한 韓民族 大集團을 渡來人이라 하며, 그들은 일본 각지에 정착하여 그 지역의 개발과 생산에 진력하여 일본 고대 기층문화 형성과 예술의 발달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일본을 다스린 천황도 한국인이었다. 일본학자 渡辺光敏은 일본 고대사는 왕권과 국가의 성립이 주제이므로 곧 천황사라고 생각하고, 일본 천황은 한국에서 왔다는 《日本天皇渡來史》를 출판하였다.<sup>4)</sup> 천황을 배출한 나라는 가야설, 부여설, 백제설이 있어 요약한다. “일본 민족의 주류는 고구려 부족과 가야 부족으로 이루어졌다. 고구려 부족과의 오랜 싸움 끝에 가야 부족이 일본열도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들은 다시 朴, 昔, 金의 三姓으로 분열됐다. 일본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일본열도의 첫 왕조는 가야조 출신의 박씨 왕실이 세운 〈제1기 야마터〉(기원전 1800~1500년경)였다.

김씨왕조인 ‘제2기 야마터’는 곰 숭배사상의 종주국인 백제의 후원을 받은 수로왕(首露王)의 자손이 세웠다.(서기 400~420년 경). 서기 672년에 석탈해(昔脫解)의 동족인 석씨(昔氏)왕실이 김씨(金氏)왕실을 무너뜨리고 ‘제3기 야마터’를 세웠다. 서기 770년에 궁중의 성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진 석씨왕실이 자멸하게 되면서, 김씨왕실이 다시 ‘제4기 야마터’의 주인이 됐다.

‘제4기 야마터’의 초대 고-년천황의 부인은 백제 무녕왕의 큰 아들 순타태자(純陀太子)의 후예인 화씨(和氏)였다. 조국을 멸망시킨 신라를 증오하는 백제 여성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간무천황의 즉위 전 해인 서기 780년부터, 일본은 가라민족과(韓民族)의 혈연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했다.”<sup>5)</sup>

崔性圭는 <일본왕가의 뿌리는 가야왕족> 입을 주장하면서,<sup>6)</sup> 일본왕가는 김수로왕의 후예일 가능성을 비친 사학자 이종항과 천관우, 재일사학자 김달수, 일본 사학자 에가미 나미오와 三笠宮崇仁의 학설과 자료를 제시하였다.

고고학적인 물증을 근거로 에가미(1948)교수는 4세기경에 미마키(御間城入彦, 崇神)라고 부르는 미마나(任那, 伽倻)의 진왕(辰王)이 이끄는, 대륙의 기마민족에 의해, 일본이 정복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레드야드(1975)교수는 북녘땅에서 내려온 부여(夫餘)의 무사들이 4세기 중엽에 한반도 남서부를 정복한 다음, 자기들을 백제라고 부르면서 곧바로 바다를 건너 일본을 정복했다고 주장했으며, 홍원탁은 4세기 후반에 야마토 왜(大和倭)를 세운 것은, 일단의 백제인들이었다고 주장했으며,<sup>7)</sup> 김성호는 비류백제라고 하였고,<sup>8)</sup> 최재석은 백제인이 4C에 야마토 왜를 세웠고 700년까지 백제인에 의해 경영되었다고 하였다.<sup>9)</sup>

두 개의 문명이 접칠 때 또는 충돌할 때에 언어는 대체 어떻게 되는가, 언어는 보다 고도의 문명을 가진 쪽이 반드시 지배한다 함은 문명사의 정설이다. 고대 조선어는 일본말의 어원이며 동시에 우리들이 잊어버린 우리말의 뿌리이다. 옛날에 우리는 그들과 같은 말을 썼고 같은 민족이었다. 불전연구의 대가인 일본의九州대학 명예교수 田村圓澄씨가 아사히신문의 연재물 「續日本古代史의 수수께끼」 속에서 '奈良시대의 불전은 조선어로 읽히었다'라고 하였는데, 불전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이 사용하였던 언어도 그대로 고대 조선어였다. 이처럼奈良시대까지는 한일 양국의 언어는 같고 모음이 8가지였으나 일본은 平安이후 5가지로 줄었고, 한국은 15C이후 21개로 급증하여 양국어가 달라졌다.<sup>10)</sup>

### III. 한국의 기본포와 포의 종류

한국 기본포(도 1)의 형태는 곧은것이며 소매는

좁고, 옷길이는 종아리정도 길이이며 옷깃, 수구, 쇄, 밑단에 이색선이 둘러져 있다.

古代國家 중에서 袍에 관한 기록이 있는 夫餘, 백제의 기록과 가시적 자료인 고분벽화를 분석해보면, 기본포 외에 3종류의 袍가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음을 나타낸다.

#### 1. 문헌기록을 통해 본 袍의 종류

“夫餘는 白衣를 숭상하여 白布로 만든 大袂袍와 袴를 입고…”<sup>11)</sup>, 大袂袍란 上下衣가 허리에서 붙여진 길에 넓은 등근 소매가 달린 중국포(도3, 도7), 혹은 기본포에 넓은 등근 소매가 달린 포이다. 그러나 후에는 넓은 소매로도 해석되었으며, 중국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三國史記에는 “8代 古爾王 27年(260)에 관리의 服色, 冠飾, 帶色을 定했고<sup>12)</sup> 다음해 王은 紫大袖袍에 青錦袴를 입고…”<sup>13)</sup>라는 기록이 있다.

梁職貢圖<sup>14)</sup>에 보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使臣(도 4)은 窄袖長襦 左衽에 廣袴이며 바지부리에는 넓은 異色襟이 있는데 冠만 다르다. 이것은 《唐書》에 新羅人은 長襦를 입었다는 記錄과 《周書》《通典》《北史》百濟條에 襦의 길이가 길어 袍와 비슷하고(衣似袍) 그 소매가 넓지 않다(袖微大)라는 기록과 일치한다. 무릎정도 길이인 長襦의 길이가 길어지면 한국의 기본포가 된다. 고이왕 28년에 왕은 大袖袍를 입었다고 했으나, 고이왕 27년에 제정한 官服의 소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복으로 한국 기본포를 입었다고 본다.

#### 2.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袍의 종류

袍를 착용한 신라와 백제의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삼국의 복식이 같다는 문헌기록에 의해 고구려 고분벽화를 분석한다.

고분벽화에서 袍를 착용한 사람은 대부분 上流層

으로, 의례용으로 착용되었다.

### 1) 기본포

우리나라 袍의 기본형(도 1)은 窄袖形의 左衽이며 길이는 종아리 이하이고 선이 옷깃, 수구, 설편, 밑단에 둘러져 있고 허리에 대를 맨 것이다. 壁畵에는 대부분 女子가 입고 있다. 기본포형의 종류는 6가지이다. ① 기본포의 소매보다 소매 넓이가 넓어진 것, ② 副襟을 맨 것, ③ 팔뚝에 襟을 맨 것, ③ 肩衣(어깨에 別布를 맨 것)를 맨 것, ④ 팔뚝의 선과 견의를 맨 것, ⑤ 팔뚝에 선을 대고 소매가 넓어진 것(도 5), ⑥ 밑단에 선이 없는 기본포(도 6)이다.

### 2) 漢化된 포

上流層 男子는 대부분 漢化된 袍를 입었으며, 4가지 樣式이 보인다.

① 上·下衣가 허리에서 붙여진 袍로 수구·옷깃·밑단에 異色襟이 있고 소매가 袂형(도 3)袍이며, 덕흥리 고분, 幽州 13郡 太守, 수산리 고분(도 7), 안악 3호분의 주인이 착용했다. ② 소매가 넓고 上·下衣가 허리에서 붙여지고 同色襟을 맨 袍이며, 쌍영총·매산리 사신총·태성리 제1호분·약수리 고분의 주인이 입었다. ③ 옷길이는 길고, 옷깃·수구·밑단에 襟이 있는 窄袖袍로 안악 3호분 주실희광행렬도의 男子(도 8)들이 입었는데 2가지로 해석된다. 즉 설편에만 선이 없는 기본포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上·下를 허리에서 붙인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④ 袂형 기본포는 벽화에서 찾을 수 없었으나, 어느 계층에서 착용하다가 도래인이 일본으로 입고 가서 계속 착용했으며(萬葉集에 袂가 기록됨), 平安시대에 小袖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본다.

漢化된 袍는 女子(약수리고분·덕흥리고분·안악 3호분·감신총·쌍영총 등)도 입었다.

1997년 전호태의 연구<sup>15)</sup>에 의하면 고분벽화 수는 91기이며 필자가 文獻를 통하여 확인한 인물도 중

심의 古墳壁畵는 33기이다. 필자는 33기의 벽화 중에서 우리나라의 基本服을 착용했는가 혹은 변화된 의복을 착용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基本服을 착용한 것은 韓國的 要素가 강한 것으로, 漢化된 의복(변화된 의복)이 섞여 있는 것은 韓國과 中國의 요소 2가지가 섞여있는 것으로 구분했는데 황해도와 평양지역의 벽화고분은 중국적 요소가 강하거나 한국과 중국의 요소 2가지가 섞여 있었으나 通構, 輯安地域 壁畵古墳은 韓國的 要素가 강했다. 이것은 연대적인 변화보다는 지방적 특성으로 생각되며 복식에서는 벽화의 편년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황해도 평안도 지역 16基 古墳은 中國的 要素가 강했으며 中國的 要素와 韓國的 要素가 섞인 古墳壁畵도 있었는데 男子보다 女子들이 基本服을 많이 입고 있었다.

5世紀~6世紀 通構壁畵에 傳統服飾이 남아 있는 이유는 “傳統文化는 自然環境에 의해서 性格이 決定되는 것이며 어느 民族이 特定地域에서 統一, 單一體로 남아있는 이상 그 文化는 個性을 가진 民族文化로 保存되고 남아 있게 되는 것”<sup>16)</sup>이며, 또는 小川의 停滯殘存의 원칙으로도 설명된다. “주로 지방적으로 偏在하고 있는 服飾이 文化의 主流가 時代와 함께 발전하여 가고 있는데에 對해서 그 지역에 정제하여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각 지역에 잔존하는 民族服飾이나 民俗服飾을 말한다.”<sup>17)</sup>

평양천도(427) 이후 황해도와 평양지역의 벽화에 중국적 요소가 강한 것은, 안악 3호분(357)과 덕흥리 고분(408)의 影響이 컸다고 생각한다.

## IV. 일본의 고소대(小袖)

小袖의 형태는 끈은깃에 길이가 종아리부터 땅까지이며 소매는 2종류가 있는데, 통수(筒袖, 窄袖)인 것과 袂형소매이며, 통수포의 형태는 한국의 기본포와 같고, 袂형포는 기본포에 둥근 소매가 달린 것

이다.

小袖의 원류는 한국의 기본포와 袂형기본포이며 한국인이 일본으로 이주할 때 입고 간 것이다. 小袖의 명칭은 平安시대에 사용한 용어이므로 임의로 平安시대 이전은 筒袖포와 袂형포라고 할 것이고, 平安시대는 筒袖小袖, 袂형小袖라고 하며 平安시대 이후는 小袖의 소매는 袂형으로 인식됐으므로, 小袖와 통수小袖라고 한다. 시대에 따른 변화를 고찰한다.

## 1. 白鳳, 奈良 시대의 袍

大和개신(645)부터 710년까지를 白鳳時代라 하며, 이후 70여년 간은 율령제 국가가 확립된 시기로 奈良時代라고 한다. 중앙집권체제는 大化 改新(646)으로 확립되었으며, 天智天皇 10년(671)에 日本 최초의 법전〔近江令〕이 완성되었고, 遣隋使〔607, 608, 614〕와 遣唐使〔18회〕를 보내는 등 隋와 唐의 文化를 받아들여 天武天皇 13년(685)에 唐의 袍〔團領〕가 朝服으로 채용되었다. 이때를 袍袴양식 시대라 한다<sup>18)</sup>.

### 1) 筒袖袍

통수<sup>19)</sup>포는 한국의 기본포와 같은 袍를 말한다.

〈도 9〉는 奈良縣 石川郡 春月山에서 출토된 土俑으로 한국의 기본포(도 1)와 같으나 다른 점은 선만 없다. 江馬務<sup>20)</sup>도 八木裝三郎이 上代衣服考에서 인용한 〈도 9〉는 袍이며 小袖의 기원이라고 필자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도 10〉은 天壽國曼荼羅繡帳(622년)의 중치는 스님으로 땅에 끌리는 긴 袍 위에 가사를 걸쳤는데 한국 기본포보다 길이만 긴 것이다. 한국에서 불교가 전래되면서 스님이 입고 간 옷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학자 金澤康隆도 奈良시대부터 민간사에 사용된 小袖型 의복은 조잡한 麻 나 木綿으로 만들었다고 보며 상류층도 유사한 형태인 麻布로

된 카타비라(カタビラ)를 입었다고 본다<sup>21)</sup>고 했으며 塚原ミツ는 민간에서는 후대의 小袖형식으로 보이는 의복이 奈良시대에 출현했고, 正倉院御物 속에도 이에 속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며, 짧은 筒袖形의 것에 繩帶를 매고 노동에 종사하는 풍속이 문헌이나 자료에도 남아 있다.<sup>22)</sup>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본포 밑단에 襴(襪)을 댄 朝服(도 11)이 있는데, 당시 서민들이 입었던 기본포 밑단에 襴을 대어 制服으로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小林惠子は 高松塚(7C말~8C초) 벽화의 官人(피장자의 從者)의 복장인데 이것은 실제로 착용하던 복장이며 官에서 제정한 制服(朝服)일 것으로 추정<sup>23)</sup>하였다. 8人の 官人(도 11)은 黑色 漆紗冠, 垂領左衽袍와 白袴, 黑履 차림이다. 袍色은 黃色(白帶), 白色(綠帶), 綠色(紅帶), 靑色(白帶)이며 밑단에 襴이 있고 布帛帶를 매었다. 襴은 천무천황 13년(685) 윤 4월 5일 詔<sup>24)</sup>에 의하면 조정에 출입하는 옷에 사용하였다. 소매는 약간 넓은 편이며 수구 끝으로 안에 입은 白色衣의 긴 筒袖 소매자락<sup>25)</sup>이 비어져 나와 있다. 白色衣의 옷길이는 보이지 않지만 만약 옷길이가 길다면 平安시대 裝束 속에 입었던 白色 小袖(도 14)로 추측해보면 통수포(小袖)는 일찍부터 상류층 예복의 속옷으로 입혀졌을 가능성이 크다.

### 2) 袂형 袍

袂형 袍에 관한 것은 莢葉集의 기록과 오우수(襖子, 도 12)로 유추할 수 있다.

袂형 袍란 소매가 袂형인 포(도 3)를 말하며 2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上·下衣가 허리에서 붙여진 袍로 고구려 벽화에 많이 보이며(도 7) 중국 漢의 영향을 받은 옷이다.

둘째 우리나라 기본포에 袂형 소매가 붙은 것(도 13)인데, 임의로 袂형 기본포라 한다. 고구려 벽화에서 찾을 수 없었지만 일반인들에게 많이 착용됐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裁斷法이나 裁縫法으로 보아도 上·下衣를 연결시킨 袂형袍보다는 소매

만 袂형으로 만들어 기본포에 달면 되므로 만들기가 쉽고 간단하며, 옷감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동복인 襖子(도12)는 袂형기본포(도13)보다 길이만 짧은 것이다. 길이를 길게하여 상류층에서 착용하였을 가능성은 크다. 또한 襖子(오우수)라는 용어는 古語로 平安시대 이전부터 사용된 단어<sup>26)</sup>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도 袂형기본포가 착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살핀 결과 도래인이 입고간 袂형袍는 일본에서 계속 착용됐기 때문에 《萬葉集》<sup>27)</sup>에도 기록되었을 것이며, 筒袖袍와 함께 계속 입혀지다가, 平安시대에 小袖라는 명칭이 사용됐을 때는 통수포와 袂형기본포 모두를 지칭했었다고 본다.

## 2. 平安시대의 小袖

平安시대란 794년부터 약 400년 간을 말하며 전기는 唐風文化의 색채가 강했으나 후기에는 中國文化를 기초로 하여 일본 독자적 문화를 형성한 藤原시대를 말한다.

대다수의 일본학자들은 小袖에 관한 最古의 기록이 10C(950년설과 982년설)에 있어 이때에 小袖가 생겼다고 하므로 最古 기록만 다루며, 가시적 자료로 본 小袖는 통수小袖와 袂형小袖로 나누어 고찰한다.

### 1) 小袖에 관한 最古의 기록

小袖에 관한 最古의 기록은 950년 설과 982년 설 2가지가 있다. 하나는 天曆 8년(954) 경 간행의 「吏部王記」, 같은 시기의 源高明(914~982) 著, 62대 村上천황項의 의식, 전례를 기재했던 「西宮記」의 한권인 「朝拜하는 장면」의 예복에 大袖, 小袖의 이름과 함께 모두 예복이었음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로 미루어, 小袖의 이름이 950년 경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어느 것이나 예복의 상의인 대수에 대한 小袖로서, 소매가 대수보다 다소 소형인

소매의 의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근세 이후의 小袖와는 약간 상이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되기도 한다.<sup>28)</sup>

둘째는 거의 비슷한 시기의 기록이 《北山抄》의 「野行幸」인데 《北山抄》는 一條天皇(986~1011)에서 후 一條天皇(1014~1036)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보면 대신급의 사람을 제외하고 小袖를 착용하는 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록에서는 仁和(885~888) 이전에도 小袖가 있었던 것같이 보이나 연구할 사항이다.

《源語秘訣》의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는 남녀 모두 袴를 입을 때에는 小袖를 입고 다스끼를 사용한다. 一條院御가 하카마(袴)를 입기시작하여 고소대를 입었다고 하였다. 또한 《玉藻》 承久 2년(1220)條에도 이 기사가 보인다. 一條천황의 着袴기록은 《皇年代略記》의 천황 5년(982) 12월 7일의 일로 「着袴三才」라고 있다.

袴와 小袖의 착용 예는 《玉藻》 文治 3년(1187)의 高倉院 第二皇子의 예가 있다.<sup>29)</sup>

그러나 齋藤輝子は 많은 小袖의 발상은 《玉藻》 承久 2년(1220) 1월 5日條에 一條천황(986년 즉위)이 小袖를 입었다는 기록으로부터 10C 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承久 2년에 쓰여졌으므로 200년 이상 전의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의문이 있다. 10, 11C의 다른 사료를 검토 비교할 필요가 있다<sup>30)</sup>고 하였다.

### 2) 가시적 자료로 본 小袖

#### (1) 통수小袖

小袖는 원래 서민복이었으나 公家(귀족층) 문화 속에 동화되어 귀족층에서 통수小袖를 裝束, 直衣, 直垂의 下着으로, 잠옷(寢衣, 宿衣)으로, 평상복(집에서 입는 옷)으로 착용하였다.

武士와 서민은 小袖를 표의로 착용하였으며, 僧衣로도 착용되었다.

#### ① 公家 남자의 통수小袖

통수小袖를 下着으로 착용한 예는 吉備大臣入唐繪詞에 吉備大臣의 束帶를 벗은 下着으로서의 小袖姿(도 14)가 있고, 直垂 밑에 입는 下着인 色小袖가 平治物語繪卷에 보이며 直衣 밑에 입은 下着인 小袖가 餓鬼草子繪卷河本家本에 있다.

통수小袖를 잠옷(寢衣, 宿衣)으로 입는 예는 承久保北野天神綠起繪卷에 病床의 藤原時平의 모습이 있고 伴大納言繪詞에는 清和천황의 침의 모습이 있으며 기록<sup>31)</sup>도 있다.

## ② 公家 여자의 통수小袖

귀족 여자들은 小袖를 平治원년(1159) 裝束의 한 가지(一具)로 넣었고 평상복이나 略裝에도 사용되었으며<sup>32)</sup> 어린이의 통수小袖 착용모습도 많다.

## ③ 武家の 통수小袖

무사는 원래 서민 중에서 나왔으나 후에는 서민보다 윗계급에 앉게 되었다. 서민과 같이 筒袖小袖(도 15)를 입었다. 平安시대가 되면서 무사는 많은 귀족에 종속했기때문에 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복으로 서민과 같은 통수小袖袴(도 16)를 착용하였다<sup>33)</sup>.

## ④ 서민의 통수小袖

서민 남자는 무사와 같은 筒袖小袖와 小袴(도 16)를, 여자는 일찍부터 筒袖小袖(도 17)를 착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허리에 布(도 18)를 들렀다.<sup>34)</sup>

## ⑤ 僧의 통수小袖

僧의 小袖는 公家の 布施, 供養料이었으므로 통수小袖와 袂형小袖 둘 다 사용했다고 본다.

僧에게 布施, 供養料에 小袖가 들어간 기록은 《挾桑略記》에 寛治二年(1088) 白河上皇이 高野山에서 法會에 초대받지 못한 하급 승려에게 小袖 30領을 하사하였다고 있다. 이후 12C 중엽까지 증가하여 1057년, 1107년, 1124년, 1127년, 1130년, 1153년, 1155년, 1156년, 1166년 1191년, 1290년의 기록이 있다. 또한 1029년에 仁和寺에 奉納된 裝束에 小袖가 포함되어었는데, 1225년, 1290년의 기록도 있다.<sup>35)</sup>

## (2) 袂형小袖

袂형小袖(도 13)는 平安 말 鎌倉시대에 통수 대신 袂형소매가 붙어, 小袖가 새로 생겼다는 것이 일본에서의 정설이다.

필자는 袂형袍(袂형기본포와 上·下衣가 허리에 서 붙여진 袂형포)를 통수포와 함께 도래인이 입고 일본에 갔으며, 계속 입혀지고 있었다고 본다. 이유는 《萬葉集》에 袂란 용어가 기록된 것을 보아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분시대에는 다습한 기후관계로 포보다는 주로 衣禪, 衣裳 二部式 양식을 착용하다가 나라시대에 公服이 袍(단령)로 정해지면서, 一部式인 袍가 유행되어 일부층에서 입혀지던 통수포와 袂형기본포가 승격되어 착용되었다고 본다. 또한 平安시대에 사용된 小袖란 용어는 새로운 袍制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수포와 袂형기본포를 小袖라고 부른 것으로 보며, 平安시대 말기에는 袂형小袖가 表着化 되어 小袖는 袂형으로 인식되었다고 본다.

계급에 따른 袂형小袖의 表着化는 서민이 제일 빨랐고 다음이 武士이고 公家가 가장 느렸다.

公家の 의생활에서 小袖는 12C 中 경에는 속옷 혹은 朝服의 下着으로 착용되다가 安元(1175)경부터 織物小袖와 겹쳐입는 小袖의 출현을 보았으며, 建久(1191) 및 寛喜(1229)경에는 직물小袖와 겹쳐입는 小袖의 사용금지령이 내렸지만 일반에는 착용되고 있었다.

무사의 의생활은 무사의 실제성, 합리성으로인해 의복의 簡易化가 빨리 이루어져서 서민보다는 늦었으나 公家보다는 빨라 平治(1159)경 小袖는 表着化되었다. 또한 色小袖의 출현도 公家の 色小袖나, 織物小袖보다도 빨리 출현했다.

서민은 12C 이전에 이미 小袖가 表着이었으나 12C초에는 襖(도 12), 소매없는 옷, 小袖가 일상생활의 의복<sup>36)</sup>이었다. 이것은 서민의 생활윤리, 간소성, 실용성을 중요시하여 생겨난 의복이다.

### 3. 鎌倉・室町時代の 小袖

武家が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鎌倉시대는 幕府를 설치한 1192년부터 幕府 멸망(1333)까지를, 室町시대는 武家정치가 부활되어 室町幕府가 시작된 1336년부터 1573년까지를 말한다. 小袖 소매가 袂형(도 13)으로 인식된 시기가 平安말기이므로 鎌倉시대는 小袖와 筒袖小袖라고 한다.

鎌倉시대 중기 이후 武家の 公服, 禮服이 된 히다다레(直垂)에 대응하는 여자 복장은 小袖(도 13)였으며 直垂의 사회적 지위상승은 곧 小袖의 지위상승이었다

平安末期 이후 가라기누모(唐衣裳, がらぎぬも)가 간략화되어 略裝인 고소데와 袴(도 19)가 정장 같이 입혀졌다.<sup>37)</sup>

公家の 裝束은 織物이 主體이고 여러 벌을 겹쳐 입는 着裝美로 치장한 반면 庶民服은 한장의 小袖, 小袴 차림새(도 16,19)였으므로 그 자체에 무늬나 색을 써서 장식하였기때문에 소박한 홀치기나 판염 등 간단한 무늬를 사용했다.

사회가 남성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여성지위의 저하는 심화되고, 시대가 추구하는 '여성다움'의 변화는 결국 袴를 벗게 되어 고대부터 입어 왔던 二部式 의복(도 19)이 室町시대를 경계로 一部式(도 23)으로 변화되었다.

서민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의복의 향상이 현저해 저서 화려한 무늬染이 발달하였으며 여자의 小袖는 승격하여 일반화되었고, 외출시에 서민도 小袖를 머리에 쓰는 식이 일반화되었다.<sup>38)</sup>

반면 일부 서민층에서는 짧거나, 긴 筒袖小袖(도 20)를 계속 착용하였다.

### 4. 江戸시대의 小袖

室町幕府(1573)이후 織田信長과 豊臣秀吉시대를 지나서 徳川家康이 江戸에 幕府을 둔(1603) 이후

266년간을 江戸시대라 한다. “幕府는 봉건체제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신분제를 시행하였다. 將軍・大名・武士는 ‘士’라는 귀족신분, 농민・수공업자・상인은 평민신분, 천민신분으로 구분된다. 무사신분은 將軍을 비롯하여 20등급이 넘는 신분이 있었으며 신분에 의해 거주지・직업・복장이 제한되고, 결혼도 신분이 다른 경우는 불가능했다.”<sup>39)</sup>

江戸시대는 徳川幕府의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일본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1) 귀족의 小袖

“현재의 ‘기모노’의 형이 거의 완성된 것은 江戸시대 中期(元祿 1688~1703년경)이며 현존하는 초기 小袖(室町말, 桃山, 江戸초기의 小袖)(도 13)와 江戸중기 이후의 小袖(도 23의 右)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초기 小袖는 ① 소매 폭은 좁고 품은 넓으며 ② 小袖의 밑둘레는 약 190cm로 오늘날의 것보다 60cm나 넓고 ③ 목둘레가 좁아서 입으면 목덜미에 밀착된다.”<sup>40)</sup>

#### 2) 庶民의 小袖

##### (1) 농민복

농민은 하루종일 일해야 하므로 작업복 자체가 생활복이었다. 일본은 남북에 길게 뻗어 있어 한남의 차가 심하므로 의복의 특징은 남쪽은 정장이 길이의 一部式(도 15), 북쪽은 二部式으로 변화는 거의 없었다.<sup>41)</sup>

##### (2) 職人の 作業服(仕事着)

職人の 작업복은 鎌倉시대부터 室町기에 걸쳐 생겼고 江戸시대(1601~1867)에 형성되었다. 《71番 職人歌合》을 보면 142의 직업인과 60여 職인이 열거되었는데 대부분 筒袖小袖袴, 小袖袴, 小袖(도 21) 모습으로 농민복, 상인복과 같았다.<sup>42)</sup>

##### (3) 町人服

“室町幕府는 정책적으로 상업을 보호하고 상인을 城下町으로 이주시켰다. 상인은 장사도 생활도



같은 장소에서, 座居生活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녀가 모두 小袖로 생활하게 되었다. 남성은 필요할 때는 袴를 착용했지만, 여성은 小袖 중심의 衣生活이 되었다.”<sup>43)</sup>

江戸시대는 문화가 지배계급에서 피지배계급에게 돌아간 시대로서, 경제적 실력을 가진 町人인 신흥세력으로 대두되었다. 최하위의 신분인 町人은 특히 복식에 관심이 많아 上流貴族과 武家풍속을 모방하다가 풍속의 주도권을 町人이 장악하게 되었다. 반면 손님보다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町人들은 거의 木棉과 줄무늬 옷(도 22)을 입었다.

민중오락인 歌舞伎구경, 꽃구경, 神社의 祭禮가盛行했으며 가부키 役者(名優)의 의복·신·악세서리·무늬·색·옷감 등이 유행의 근원이 되었으며 遊廓의 유녀들의 의복도 小袖에 끼친 영향이 컸다.<sup>44)</sup>

《江戸物價圖聚》에서 상인들의 차림을 분류한 결과 ①고소데·袴·행전차림, ②襦袴 차림, ③小袖(도 22) 차림, ④長襦만을 입은 차림 등으로 농민·職人の 모습과도 같다.

小袖에 매는 대는 享保(1716~1735)경까지 前代 이래의 組帶가 상용되었고 여러 종류가 있었다. 중기에 미혼녀 사이에서 小袖의 소매를 넓힌 후리소데(振袖, 도 23의 左)가 유행됐는데 소매넓이가 1658~1661년 경에는 57cm(1尺5寸)이다가 1716~1736년 경에는 90cm~95cm(2.5尺)가 되었다.<sup>45)</sup>

통수小袖는 작업복(도 21)과 상인복(도 24)으로 계속 입혀졌으며, 浴衣(유까다)와 長襦袢으로 전승되었다. 유까다(도 25)는 남녀가 착용하는 무명으로 만든 긴 홑옷으로 입욕시 입었던 유까다비라의 略稱이다. 나체로 목욕하게 된 江戸시대에는 목욕 후에 착용하는 옷으로 되었고, 중기 이후 소매가 넓어져 일반서민의 평상복이 되었다. 외출복으로서 유까다는 小袖와 같았으며, 잠옷으로서의 유까다는 통수小袖와 같았다.<sup>46)</sup> 長襦袢(도 26)은 江戸 후기 여성의 예복으로 품이 넓고 길며 지리멘(縮緬), 絹

에 염색이나 자수로 장식한 겹옷이다.

## V. 결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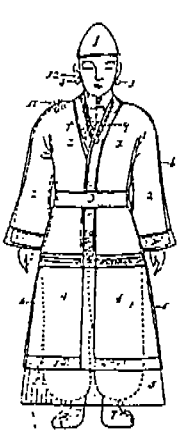
1. 벽화를 통해 본 한국의 袍 종류는 기본포형이 6 종류, 漢化된 袂형포에 3종류가 있다. 한국인이 일본으로 집단으로 이주할 때 입고 간 옷의 종류도 된다.
2. 고소데(小袖)란 大袖에 대비되는 名稱으로, 禮服(大袖 表衣)의 아래에 입는 좁은 소매옷이며 現代 기모노(着物, きもの)의 옛 명칭이다.

小袖의 원류는 한국 기본포형인 筒袖袍와 袂형袍이며 日本으로 도래인이 입고 갔다고 보며, 平安시대에 小袖라는 명칭이 사용됐을 때는 통수포와 袂형기본포 모두를 지칭했었다. 袂형袍는 계속 일본에서 착용되어 《萬葉集》에 記録됐다고 본다. 平安 말기에 袂형小袖가 표착화되어 小袖는 袂형기본포로 인식되었다. 鎌倉時代に 小袖의 지위가 상승되고 室町시대를 경계로 하여 모두 小袖를 입게 되었으며, 江戸 中葉에 현재 기모노인 후리소데가 정립되었다.

3. 통수포는 일본에 도래인이 입고 간 후 계속 입혀지다가 天武天皇13년(685)에 朝服을 정할 때 속옷으로 입었다고 보며 平安시대에는 小袖로 불려졌으며 상류층의 禮服의 下着, 잠옷, 평상복으로 입혀진 자료가 있으나 이미 이전부터 입혀졌다고 본다.
4. 平安 말기에는 小袖가 袂형으로 인식된 후도 계속하여 통수포는 서민의 表衣로 입혀졌다. 江戸 시대에도 職人과 농민의 작업복, 상인복으로 입혀졌고 浴衣(유까다)와 長襦袢으로 전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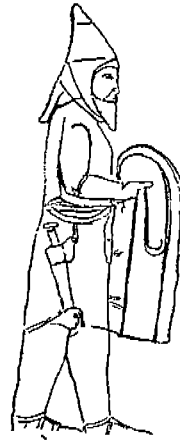
또한 小袖의 影響을 받은 袂형유까다도 생겨 외출복으로 입혀졌다. 筒袖 유까다는 길이가 길어지고 右衽이 되어 현재도 입혀지고 있다.

현재 Hotel의 잠옷, 병원복 등이 筒袖유까다 형태이며 農民의 作業服(仕事服)으로서 現在까지 사용되고 있다.



1. 冠帽
2. 襦
3. 帶
4. 袴
5. 裳裙
6. 袍
7. 履靴
8. 鐃(耳飾)
9. 瓔珠(頸)
10. 襖
11. 瓔珠(綴衣)
12. 組纓

<도 1> 우리나라 古代 基本服飾  
(李如星, 朝鮮服飾考, p.1)



<도 2-1> 포(공물)를 들고가는  
스키타이인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부조(太田靜六, 1965)



<도 2-2> 고대 페르시아 袍,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부조  
(B.C 6C 太田靜六, 1965)



<도 3> 袂형 袍  
(袂·祛·袖·畫像石 武氏 左右室)  
(源田淑人, 漢代の 文物)



<도 4> 梁職貢圖(6C)의 3국사신  
(李成市 梁職貢圖의 고구려사도について)



<도 5> 소매넓이 기본포  
(조선유적유물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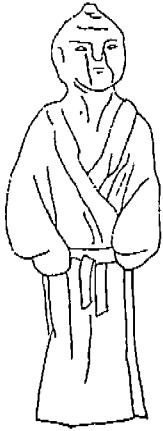
<도 6> 무용총 밑만없는 기본포  
(한국미술전집)



<도 7> 上·下衣가 허리에서 붙여진  
袂형포 수산리고분주인(고구려문화전)



<도 8> 안악 3호분 행얼도  
(한국미술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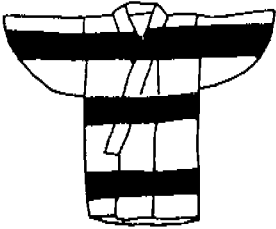
〈도 9〉 奈良縣石川群 春月山 출토 土俑  
(江馬 ● 風俗史圖錄-古代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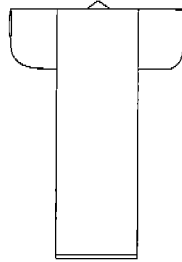
〈도 10〉 天壽國曼荼羅織帳(622년)의  
스님의 袍(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p.111).



〈도 11〉 高松塚 官人袍  
(日本の美術6, No. 217)



〈도 12〉 平安時代 오수수(褌子)  
(藤木悦子, 小袖の成立, p.30).



〈도 13〉 袂형 小袖(桃山시대  
동경박물관 日本の美術 小袖)



〈도 14〉 裝束의 속옷(통수小袖 平安시대)  
(吉備大臣入唐繪卷, 鷹司綸子,  
公武勢力轉換期에 본 服裝의 變動, p.40)



〈도 15〉 활과 화살든 무사(平安時代)  
(服裝文化 No. 158, 1978)



〈도 16〉 平安 鎌倉時代の  
初期 통수 小袖, 袴  
(塚原ミツ, 小袖의 歷史的 考察, p.87)



〈도 17〉 平安時代 서민여자 筒袖衣]小袖,  
남자 水干 밑에 통수 小袖·袴  
(京都박물관 엮서)



〈도 18〉 平安 鎌倉時代の  
初期 통수 小袖  
(塚原ミツ, 小袖의 歴史的 考察, p.87)



〈도 19〉 鎌倉시대 小袖, 袴  
(袂형, 丹野郁, 服飾史 辭典, p.163)



〈도 20〉 室町시대 직인의 통수 小袖  
(服裝文化 159, 1978)



〈도 21〉 江戸시대 직인의 통수 小袖  
(笠絲師)  
(金譯康隆, 江戸服飾史)



〈도 22〉 江戸시대 상인의 줄무늬 小袖  
(三谷一馬 江戸物賣圖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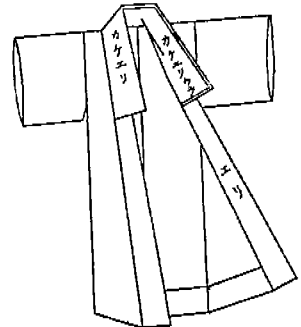
〈도 23〉 江戸시대 振袖(左)와  
小袖(右)〈繪本紅葉橋〉  
(金譯康隆 江戸服飾史)



〈도 24〉 江戸시대 상인의 통수 小袖  
(三谷一馬 江戸物賣圖聚)



〈도 25〉 江戸시대 浴衣  
(南光外, 浴衣いついての-考察)



〈도 26〉 江戸시대 長襦袢  
(金驥康隆 江戸服飾史)

## 참고문헌

-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吉川弘文館 1974
  - 梁연국 《조선문화가 초기일본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 집문당 1995
  - 山根有三 《日本の美術 17巻》 〈桃山の風俗畫〉 平凡社 1967
  - 小袖服飾篇 《東京國立博物館圖版目錄》 便利堂 1983
  - 神谷榮子 編 《日本の美術 No67 小袖》 至文堂 1971
  - 李成市 〈梁職貢圖の高句麗使圖について〉 《東アジア史上の國際關係と文化交流》
  - 日野西資孝 編 《日本の美術 No26 服飾》 至文堂 1968
  - 《조선유적유물도감 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 1) 스키타이인이 공물로 들고 가는 袍(도 2-1)는 고대 페르시아인이 착용한 袍(도 2-2)와 같으며 한국 기본포(도 1)와는 밑단에 선이 있고 허리에서 대를 매지 않고 팔을 끼워 입지 않은 입음새가 다르다. 필자는 스키타이의 袍를 바지와 함께 페르시아인이 채용했다는 논문(〈페르시아복식에 관한 연구〉 《의류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6)을 발표했다.
  - 2) 權兌遠 《한국사회풍속사연구》 경인문화사 1980 p.12.
  - 3) 김미자 〈韓國 襦袴와 中國 袴褶의 普遍성과 特殊性에 관한 研究-4C~7C를 중심으로-〉 《복식 33호》 한국복식학회 1997 p.73
  - 4) 渡辺光敏 《日本天皇渡來史》 知文社 1995
  - 5) 박병식 저 《도적맞은 우리 국호 日本》 문학수첩 1998 pp 267~268.
  - 6) 崔性圭 《일본왕가의 뿌리는 가야왕족》 을지서적 1993, pp14~16.
  - 7) 洪元卓 《백제와 대화일본의 기원》 구다라 인터내셔널 1993 p. 351.
  - 8) 김성호,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 지문사, 1982 p 350.
  - 9) 최재석 《백제의 대화왜와 日本化과정》 일지사, 1990 pp 12~15.
  - 10) 朴炳植, 朴寬淳譯 《日本語의 悲劇》 평민사, 1987 pp30~175.
  - 11)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
  - 12)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27년조
  - 13)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28년 정월조 《구당서》 백제
  - 14) 洪思俊 譯 〈梁職貢圖의 時代와 作者-畫와 解說을 보고〉 《백제연구》 12집 學研文化社 1981 pp.177~189  
현재 梁職貢圖는 原本은 없고 模寫圖만 3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宋時代의 模寫本은 南京博物館에 所藏되어 있으며, 35개국 중 13개국의 使臣圖가 그려져 있는 중에, 우리나라의 國使로는 百濟國使만 실려있다. 나머지 2벌의 模寫圖는 臺灣의 故宮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唐初期의 閻立本이 模寫한 것으로 여기에는 24개국 26명의 使臣圖가 있고, 다른 하나에는 南唐 顧德謙이 模寫한 32개국 35명의 使臣圖가 있다고 한다. 이 두벌의 模寫圖에는 우리나라 三國의 使臣이 모두 실려있다.  
최근 中共學者 金維諾는 〈梁職貢圖의 時代와 作者-畫와 解說을 보고〉 에서 南京博物館 所藏 職貢圖는 原本이라고 주장하였다.
  - 15) 兪虎兌 〈고구려 구분벽화 연구-내세관 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14
  - 16) 金元龍 《韓國文化의 起源》 1977
  - 17) 小川安朗 《民族服飾의 生態》 東京:東京書籍株式會社 昭和59年 p.4
  - 18)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22  
久野健 辻惟雄 永井信一 共著, 秦弘燮 譯 《日本

- 美術史》悅話堂 美術選書 11, 1978, p.5, p.12
- 19) 筒袖는 窄袖와 같다.北村哲郎(日本服飾史 p12), 杉本正年(東洋服裝史論考 古代篇 p47), 日野西資孝(日本の美術 NO.26 服飾 p19)는 하나와 상의의 좁은 소매(도1과 같음)를 통수라고 했고窄袖라고 설명한 사람은 遠藤武(圖說 日本服飾史 p9)와 高橋建(歷世服飾圖說 p11)이다.
- 20) 江馬務 《風俗史圖錄》別卷 中央公論社 1989 p.14
- 21) 金澤康隆 《江戸服飾史》青蛙房 1988 p.87
- 22) 塚原ミツ 〈小袖の歴史的考察〉 《樟蔭東女子短大研究論集 3》 1977.10 p.86
- 23) 한상구 역, 小林惠子 著 《천무천황의 비밀》 고려원 1990 p.106,110
- 24) 日本書紀 천무천황 13년 윤 4월 5일 (成段九 譯註 《日本書紀》 정음사 1989 p.514,516)
- 25) 五味充子 〈高松塚 古墳壁畫의 服飾〉 《服裝文化》No157 文化出版局 1978 p.50  
포의 소매의 안을 넓게 뒤집어 접은 것으로 보았다.
- 26) 藤木悦子は 오우수는 平安시대의 一般語였지만 말기에는 없어질 정도의 옛말이었으며 《仁明記》에 「終日天寒 衆人多着襖子」라고 있는데 襖子는 솜을 넣은 방한복으로 垂領, 短衣이며 진동은 넓으나 수구가 좁은 民衆의 二部形式의 勞動服이었다고 생각되며 平安시대 이전부터 입혀졌음을 밝혔다. (藤木悦子 《小袖의 成立》 pp.29~30)
- 27) 《萬葉集》(7C후기~8C전기)에는 “袂의 개념이 일반적인 袖와 袋狀의 袂(도 3), 2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小川安郎 《萬葉集의 服飾文化》上 六興出版 昭和 61年 pp.71~73  
中村典子 〈万葉集における袖の研究〉 《杉野女子短大部紀要》21 1984 p.1
- 28) 塚原ミツ 〈小袖의 歴史的考察〉 《樟蔭東女子短大研究論集 3》 1977.10 pp.85~86
- 29) 鷹司綸子 〈初期小袖考〉 《日本服飾學會誌 2》 1983.5 p.122 《北山抄》 〈野行幸〉 舊式, 近衛大將以下着小袖, 但大臣兼大將者, 不沿云, 仁和以後, 忽不着
- 30) 齋藤輝子 〈平安時代における小袖の成立-その表着化をめぐる〉 《家政學雜誌 176》 일본가정학회 1979 p.19
- 31) 嘉承二年(1107) 섭정 藤原忠實이 御衣(御宿物)을 바친 기록이 있는데 白御衣二枚에 小袖를 가하고 單袴를 생략했기때문에 寢衣로서 小袖를 衣 밑에 입었음을 알 수 있다.(鷹司綸子 《服裝文化 No158》 〈公武勢力轉換期にみる服裝의變動〉 文化出版局 1978.4 p.38)
- 32) 《初期小袖考》 p.126
- 33) 久保房子 〈貴族의 小袖와 庶民의 小袖〉 《羽衣學園短大研究紀要20》 1983 p.85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52  
〈粉河寺緣起繪にみる武士と庶民의 服裝〉 《服裝文化 No158》 1978.4 文化出版局 p.8
- 34) 久保房子 〈貴族의 小袖와 庶民의 小袖〉 p.87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70
- 35) 《初期小袖考》 pp.122~123
- 36) 齊藤輝子 〈平安時代における小袖成立〉 p.520
- 37)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98  
遠藤武 《日本服飾史》 東京:建帛社 pp.41~43
- 38)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102  
鷹司綸子 〈庶民의 服裝 室町雜觀〉 《服裝文化 No159》 文化出版局 1978 p.25  
高橋建自 《歷世·服飾圖說》 p.145
- 39) 井上滿 著, 서동만 譯 《日本の 歷史》 이론과 실천 1989 p.165  
塚原ミツ 《小袖의 歴史的 考察》 p.97
- 40) 北村哲郎 p.142.
- 41) 遠藤武 《日本服飾史》 p.68
- 42) 鷹司綸子 《庶民의 服裝-室町雜觀》 p.17

- 《日本の美術17》 〈桃山の風俗畫(職人, 職業圖)〉 平凡社 昭和42年 p.85
- 43) 藤木悦子 《小袖の成立》 p.30
- 44) 三谷一馬 《江戸物價圖聚》 立風書房 昭和61年  
〔292개 직업 중 320人の 圖를 모은 책〕
- 45) 金澤康隆 《江戸服飾史》 p.95  
塚原ミツ 《小袖の 歴史的 考察》 p.97
- 46) 金澤康隆 《江戸服飾史》 pp.177~178  
丹野郁編 《總合服飾史事典》 東京:雄山閣 1980  
p.412  
南光蓉子 西澤正子 《浴衣についての一考察》  
東京:園田女子大論文集11 1977 p.25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p.149~150